

될 무역장벽을 어떻게 넘어 가며, IMF 8조국 가입이나 국제수지 흑자로 인한 자유화 압박을 어떻게 극복하며, 원고 노임고, 물가고의 경제환경은 어떻게 이겨내느냐는 측면에서 정보통신 분야의 위상전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와 경쟁이 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현재는 NICS 제국일지 모르나 이미 구미 각국이나 일본이 많은 면에서 경쟁의 양상을 더하고 있다. 자동차, 조선, 섬유, 신발, 전자제품, 철강재 등등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치열한 각축전이 이들 선진국의 세계적인 대기업과 한바탕 벌어지고 있음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경쟁에서 이기는 길은 보다 나은 품질과 기능을 가진 제품을 보다 경쟁력이 있는 가격으로 신속히 공급하는데 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제품 개발력이 뛰어나야 하고, 원가인하가 되어야 하며, 적기 공급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세가지 요소의 어느 하나도 정보통신 분야의 혁신없이는 선진국 수준에 따르지 못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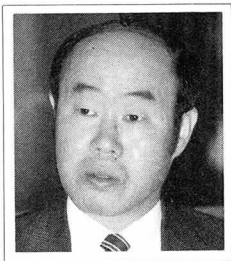
제품개발에 필수적인 CAD 하나만 들어도 선진국에서는 1.544MBPS의 고속 회선으로 수십 km 떨어진 여러 공장들이 연결되어 정보통신망을 공유하면서 설계, 조달, 제조, 영업이 유기적으로 즉시 조화하면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최대의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사에서는 C4

라는 CAD/CAM/CAT/CIM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자동차의 개발 기간을 종전의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원가를 낮추려는 노력이나 적기에 공급이 가능하게 하는 일에 정보통신 분야의 기여도는 한정된 지면으로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많다. 재고를 줄이고 불량률을 낮추려면 제조업자와 판매점 및 소재부품 공급업자간의 정보통신이 활발해짐으로써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런 일은 결코 종전의 정보통신 분야 개념으로는 도저히 선진 각국과의 경쟁에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들은 인공위성을 매개한 통신망과 마이크로 웨이브 무선 통신을 활용하여 세계 도처와 정보교환을 하면서 일하고 있으니 적기에 싼 물자를 확보할 수 있고, 우리 한국의 기업보다 한단계 앞설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여 보면 새해 1989년이야말로 우리 정보통신 분야로서는 획기적인 해가 되어야 하겠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이 분야의 촉진을 위하여 각종 법령과 고시를 개정하기 시작하였고, KTA나 DACOM에서도 고속통신회선을 포함한 각종 자원과 시설을 설치 제공하겠다고 하니 이제야 밝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는 것 같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새해의 발전을 기원한다.



## 정보문화확산, 그 2년차를 가늠한다.

金光鍊

(정보문화센터 정보문화본부장)

“산업혁명을 거쳐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변화했듯이 지금은 정보혁명으로 인해 산업사회가 정보화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즉,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결합된 정보기술로 인해 정보가 사회의 중요한 자원이 되는 사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정보화의 물결에 슬기롭게

대처해 다가오는 정보화사회가 밝고 쾌적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지난해 1월 정보문화센터가 발족된 이래 1년동안 우리는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갖가지 행사와 홍보매체를 통해 외쳐 왔다.

정보문화사업이 처음 시작되면서 범 국민적으로 펼쳐져야 하는 정보문화운동이 현실 삶에 분주한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관심을 끌 수 있을까라는 일말의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그동안 각종 행사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관심과 호응을 보면서 우리 국민은 바쁜 삶 속에서도 Homo-Espersans (미래에 희망을 갖고 사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도 40여회의 각종행사, 1천개의 VTR테이프, 5백여 세트의 슬라이드 필름, TV를 포함한 수 차례의 캠페인 광고로는 모든 국민들에게 정보화사회를 알리기에 우리나라는 너무 크게 느껴졌고 게다가 작년에는 올림픽과 민주화라는 사회의 커다란 목소리에 가려 우리의 외침은 “소리적은 아우성”에 불과했던 느낌이다.

올해인 작년에 의욕적인 용트림을 시작한 정보문화운동은 첫째였던터라 사업진행 면에서 의욕만큼 좀더 치밀했어야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뻔해인 올해에는 모든 사업을 뻔처럼 빈틈없이 진행해 작년의 아쉬움을, 정보문화 관련사업들이 더 많았으면 하는 “여운”으로 바꿔놓고 싶다.

여운의 진원지가 될 금년도 사업내용을 소개하면, 먼저 사회의 정보화 사업으로 각종 조사연구와 심포지움을 통해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정책대안을 개발, 이를 국민생활과 밀접한 중앙행정기관에 건의하며, 우리사회 각계 여론 선도자들로 구성된 정보문화협의회 활동을 활성화시켜 정보문화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중, 고, 대학교에 설치된 P/C간에 정보통신망을 구성시켜 상호 정보를 교환케 함으로써 청소년 정보문화도 육성시킬 예정이다. 그리고 정보화사회에 대한 인식을 국민 각 계층별로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시키기 위해 각 공무원 교육원과 공공기관, 단체의 연수원 및 학교에서 정보문화 강연회 및 정보통신 서비스의 시연회를 실시하며, 작년에 실시해 호응을 받았던 지방도시 순회강연회도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진국들의 정보관련 기관들과 협력관계를 긴밀히 유지,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확보하며, 정보관련 국제기구에도 가입하려고 한다.

둘째, 생활의 정보화 사업으로 국민들에게 정보기기를 직접 이용하고 학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 강남지역에 정보문화홍보관을 개관·운영하며, 정보화 혜택이 미약한 농어촌 지역에서 컴퓨터와 정보통신교육을 작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화사회에 대한 전국민의 참여분위기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보문화 관련 표어, 글짓기 및 퀴즈의 현상 공모와 TV, 라디오, 신문, 잡지를 통한 정보문화 캠페인 광고를 실시해 정보화사회에 대한 전국민의 참여분위기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영상매체를 통해 정보화사회를 사실적으로 인지시키기 위해 VTR테이프의 직접 제작, 배포 및 정보화 관련 외국 VTR테이프를 구입, 더빙해 배포하며 다영상 슬라이드도 제작, 정보문화 홍보관에서 상영하며, 정보화사회 관련 책자들을 발간, 정보화사회에 대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그리고 산업분야의 정보화 사업으로 정보화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중, 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임직원의 정보화교육과 강연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올해부터는 행정전산망 활용분야의 확대, 자동응답시스템(ARS) 및 자료처리시스템(MHS)의 실시와 문자다중방송의 일반인 시청, 그리고 정지화면 TV전화(Solw Scan TV전화)의 시판등 기술적으로 정보화사회의 실현이 성큼 가까와지게 되는데, 우리의 정보문화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기술이야 몇몇 기술자들이 개발해 내지만 문화란 범사회적 참여없이는 불가능하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민주화의 목소리가 높은 요즘인데 정보문화만이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점유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89년은 「정보문화 민주화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열화와 같은 참여와 성원이 있어야겠다. 정보문화운동이 작년에는 “소리적은 아우성”이었지만 올해에는 “큰소리의 함성”으로 한반도 전역에 메아리쳐 지길 기대해 본다. ♣